

한라사터뷰 오늘 64회 현충일 / 6·25 참전용사 홍성표용

# “전장 찾아 함께했던 전우들 기리고 싶어”

1949년 열아홉살때 입대  
전쟁중 포로 위기 겪기도  
1951년 수류탄에 큰 부상



6·25 참전용사인 홍성표용.

“통일이 된다면 차를 끌고 제가 근무했던 부대들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귀포시 서흥동에 거주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 홍성표(88)옹을 만났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하자 벌써 70년이 흘렀지만 그는 당시 부대 이름, 장소 등 모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930년 9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홍성표용은 강릉에서 매형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에 취업해 정비기술과 운전을 배우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그러다 열아홉살이 된 1949년 2월 19일 강릉에 위치한 제10연대 제3대대로 입대해 연대장 운전병을 맡게 됐다.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

는데 그 수가 여단병력이 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듣고서는 바로 중대를 이끌고 정동진으로 달렸습다.”

그렇게 시작된 6·25전쟁. 맹렬한 전투로 후퇴와 복진을 반복했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950년 겨울에는 중공군이 그가 속한 부대 진지를 습격해 포로로 잡힐 위기에서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는 위기 상황도 있었다.

1951년 6월 일등중사로 승진한 그는 소대를 이끌고 전장을 뛰어나다 다 적의 수류탄 공격에 큰 부상을 입었다.

“팡하는 소리와 함께 눈이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고 발뒤꿈치가 다쳐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전우에게 얹혀 대대의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부상 상태는 너무 심각해 사단의무대대, 원주야전병원을 거쳐 울산 육군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부상 보다는 잘 못먹어서 생긴 내장이 문제였다.

“전시 상황에서 밥을 잘 챙겨먹을 수가 없으니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의병제대를 하게 됐지요.” 그는 1952년 7월 5일 일등중사로 제대를 하게 됐다.

제대를 한 그는 몸을 치료하고 지내다 아는 천주교 지인의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1959년부터 제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됐다.

그는 1950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았지만 정작 그는 이 사실을 몰랐다. 보훈청은 그의 훈장 수여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2월 무공수훈자 등록을 마쳤다.

현재 서귀포시청 공공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제가 기력이 있을때 통일이 돼서 제가 근무했던 부대와 전투를 벌였던 장소 등을 직접 차로 가보게 소원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하나 하나 되 밟아 가며 함께 했던 전우들을 기리고 싶습니다”는 말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제주중앙지하상가 실내 공기질 '양호'

제주중앙지하상점진흥사업협동조합은 지난 3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측정 결과 시설 전체 평균농도 미세먼지(PM10) 42.4µg/m³(기준 150µg/m³ 이하), 이산화탄소 401PPM(기준 1000PPM 이하), 폼알데하이드 14.6µg/m³(기준 100µg/m³ 이하), 일산화탄소 0.5PPM(기준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0.029PPM(0.05PPM 이하) 등 공기질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중앙지하상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없고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충혼묘지 참배하는 꼬마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에서 제주어린이집 원아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시민휴식공간 질서유지 계도반 운영

제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휴식 및 운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 4개소(탐동, 탐라, 북수구, 산포)와 탐동테마거리(1950m)에 대한 질서계도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질서계도반은 제주시 도시계획과 직원 30명으로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계도사항으로는 광장내 쓰레기 투기, 주류·음식물 섭취 행위, 노숙행위, 테마거리에서 낚시 행위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광장 및 테마거리 이용시 발생한 쓰레기는 퇴거자는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 ■ 취업포털 여름휴가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 10명중 4명 “올 여름은 제주에서”

올 여름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인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제주도를 휴가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함께 성인남녀 23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트렌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52.6%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42.8%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여름휴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6%에 그쳤다.

올해 국내 여름휴가지 1위에는 제주도가 꼽혔다.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8%가 여름 휴가를 보낼 지역으로 제주도를

선택했다. 이어 강원(22.9%), 부산·경남(12.5%), 서울·경기(10.7%)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제주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름휴가지로 제주도를 꼽은 응답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전체의 42.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39.1%), 40대(33.7%), 50대 이상(28.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와 50대 이상은 ‘맛집투어’를 30~40대는 ‘관광지투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지에서 무엇을 하며 보낼 계획인지’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지역 특산물 맛집투어’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60.7%(응답률)와 65.9%로 가장 많았다.

반면, 30대(64.3%)와 40대(63.9%) 중에서는 ‘유명 관광지투어’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성민기자 hasm@ihalla.com

## 도,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안전점검

### 내달 12일까지 점검반 편성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기기구 및 설비의 결함, 물놀이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안전성검사 수검 및 안전 관리자·안전요원 적정배치 여부, 제반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및 현장 조치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

후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야영장업의 점검은 도 주관으로 행정시 관광부서와 재난관리부서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7월 12일 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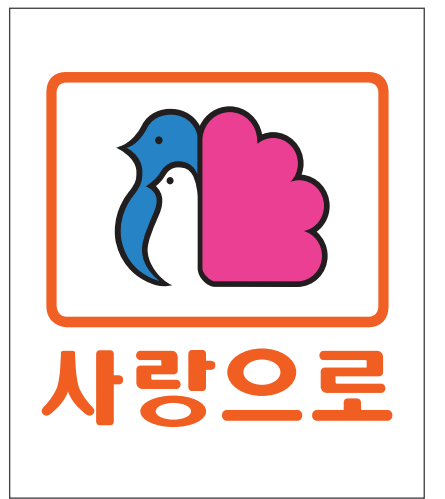
화재예방기준, 전기 및 가스 사용 기준,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관광숙박업 및 휴양펜션업 53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14개(관광숙박업 8개소, 휴양펜션업 6개소) 업체에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고대리기자

## 사관학교 입학설명회

제주도교육청은 8일 오후 1시 제주교육박물관에서 ‘2020학년도 사관학교 공동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사관학교 진학에 관심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는 사관학교 입학처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사관학교의 2020학년도 입시요강을 안내하고 입학 및 생도생활에 관련된 질의 응답으로 이뤄진다. 오은지기자



#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 천로역정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천국을 찾아서

수입/배급 CBS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명랑도'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원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땄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단체관람 신청 | ☎ 064.748.7400

facebook.com/cbscinema

TALK CBS시네마 | 천체관람가